

전실은 왜 필요하고, 어떻게 설치하면 좋은가?



필요성

전실은 농장까지 들어온 바이러스가 축사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**최후의 방역시설**입니다. 가축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**전실 설치·운영이 필수적**입니다.

-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농장 내부까지 들어온 바이러스는 농장 종사자의 손과 장화에 붙은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오염되지 않은 장화로 갈아신고, 손을 씻거나 소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설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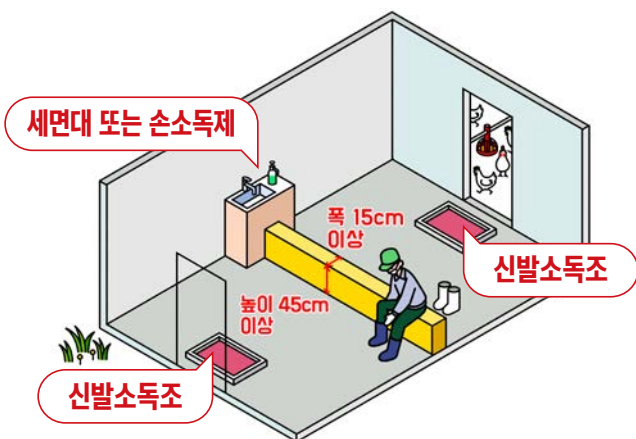
간혹 전실에서 장화를 갈아신지 않고 축사를 출입하는 경우가 있어, 이를 방지하기 위해 **전실 내부에는 반드시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을 설치**해야 합니다.

-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은 1)오염구역(전실 앞쪽)과 청결구역(전실 뒷쪽)을 구분짓는 경계선이고, 2)장화를 갈아신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, 3)무심코 외부 장화를 신고 축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.
-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차단방역 효과가 높습니다.

- (공통) 전실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을 지나도록,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의 가로 폭을 전실의 폭과 같게 설치(농장 종사자가 우회할 수 없도록 설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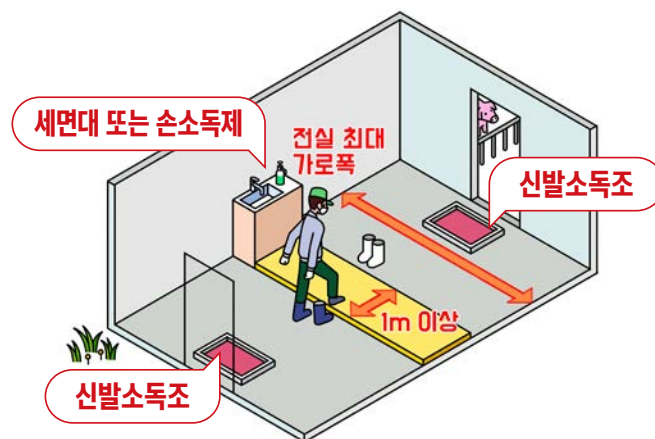
고정된 구조물

높이 45cm 이상, 세로 폭 15cm 이상으로 하여 농장 종사자가 걸터앉아 쉽게 장화를 갈아신을 수 있도록 설치



발판

사람의 보폭을 고려해 세로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 외부 장화를 신은 채 발판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설치



이용방법

농장 종사자가 축사에 출입할 경우 **전실을 꼭 거치도록** 하고 전실에서는 **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실시**(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)하며, **장화를 갈아신어야 합니다.**

- 그리고 전실 내부는 혹시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청소·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.

